

큰스님 수행한담

# 삼매에 들면 그곳이 선방



○94년 11월 25일 7개월간의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을 역임한 탄성스님이 중무행정 인계 절차를 마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 너는 왜 이름을 짓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물건이 뭐냐하면 바로 '마음(心)'입니다. 이 물건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마음 마음 하면서 사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삽니다. 육조스님이 말씀하신 그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무엇인가 하고 해서 화두이름을 '시심마(이릿고)'라고 합니다. 어떤 수행자는 이를 '이 림동이 끌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화두이름이 '이릿고'라고 해서 들어놓고 '이릿고 이릿고'라고 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두를 받은 사람이 잘못 들어서 뜻도 모른 채 '이릿고 이릿고' 하며 입으로만 읊조린다

것입니다. 것처럼 어느 한순간도 잡념을 두지 말고 고양이가 쥐잡는 것처럼 일념으로 챙기라고 한 것입니다. '나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 알을 품을 때 그 따뜻한 기운이 식게 되면 알이 썩게 돼 병아리가 되지 못합니다. 알을 품고 있다가 배가 고파 내려와 모이를 먹을 지라도 알이 식지나 알을 깨 해서 조금만 먹고 빨리 올라가 알을 품습니다. 화두 참구는 그와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집중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을 깨칠 때가 온다고 합니다. 너무 조금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예를

**“조금한 생각을 내게 되면  
몸은 병들기 쉽고 분별심 생기니  
황소가 걸듯 천천히 참구하세요”**

하고 분별심이 생겨 공부가 어렵게 됩니다. 예전에 선방수와 한분이 나를 찾아와 깊은 산골에 놓가 한 채를 얻어 혼자서 농사일 하며 정진하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열심히 정진하라고 알려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스님이 또 찾아왔어요. 이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선방에서 한철을 보내고 와보니 수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필요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세간살이가 아니냐고 물으니 그 수좌는 세간속에서 정진하는 것을 이겨내야 진짜 선객이 아니겠느냐고 되물더라고요. 그렇다면 열심히 정진해보라고 격려하고 보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수좌는 공양주도 들고 신도도 생긴 것 같습니다. 선수행하는 토굴이 어느덧 포교당화된 셈이지요. 이 스님이 잘한 것인가, 아닌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화중생의 본래 임무인 중생구제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보아야 하나, 아니면 선수행의 열의가 변질됐다고 보아야 합니까.

깨치는 것은 승속도, 남녀노소도, 귀천도 따로 없지요. 해와 달이 밝아서 우주를 비추는데 친소도 없고 원근도 없이 어느 곳든지 똑같이 비춥니다. 그런데 해가 뜰 때는 가장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춥니다. 우주를 평등하게 비추는 해와 달이 차별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해가 뜨다보니 가장 높은 봉우리를 먼저 비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정인만을 제도하려 하지 않지만 제일 먼저 착하고 신심있는 사람을 먼저 제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문도 많이 듣고 경전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는 법이지요. 듣고 읽는다는 것은 불교와의 인연은 될지 언정 도를 깨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옛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선은 활동에다 비유했고 염불 주력은 화살 등에다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활은 끈이 가깝고, 활동은 굵은 끈이 멀다는 뜻입니다. 즉 참선을 하면 쉽게 깨치지만 염불 건강 주력 등은 더디 깨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다보니 부득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먼저 깨치고 염불이나 주력을 한다고 해서 더디 깨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랐지요. 요즘 도심속에서 시민선방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만큼 쉬운 것은 없다"고 하신 분들도 더러 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출가수행자도 아닌 일반인들이 생활중에 참선 수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었습니까. 각박한 생활속에서 참선 수행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살아도 좋은 일인데 말입니다. 여러 여건으로 금생에 마음껏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참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야 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견성을 위한 수행에 다함께 용맹정진 합시다.

정리=김중근 기자

**“깨달음에는 승속도 남녀노소도 없는 법”**  
**“내가 눈을 떠야 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고 수행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를 잘못 드는 것이지요. 화두를 결탁하고 선을 할 때는 반드시 화두를 분명하게 들어서 올바르게 참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화두를 참구할 때 '고양이가 쥐잡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을 역면 그대로 고양이가 쥐를 잡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쥐구멍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를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때는 개나 닭, 사람이 옆에 와도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돌아보는 그 순간에 쥐가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환경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쥐구멍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들어 서울을 가야하는데 빨리 갈 생각으로 뛰어들면 갈수록 멀어 안가서 숨이 차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초심자의 경우 이같은 실수를 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실수를 하면서도 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근본원인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깨치지 못하니 모두가 소용이 없구나 라고 망상을 부린다면 깨침과는 더욱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수행자들은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량에 걸맞게 황소가 걸음을 걸듯 천천히 참구하며 서울을 가게 된다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두를 참구할 때도 너무 조금한 생각을 내게되면 몸은 병들기 쉽고, 마음이 산란

나는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교를 하든 참선을 하든, 팔래를 하든 시장을 보든, 모든 일이 삼매속에서 이루어지게 이뤄질 때 그곳이 바로 깨침의 선방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있었는데 용맹 정진해서 빨리 깨치려 하다가 병까지 났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부처님은 그를 불러서 "내가 세속에서 무엇을 좋아했느냐"고 물으니 거문고를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거문고 소리를 잘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 다시 물으니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안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공부도 그와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조금히 서두르면 몸이 허락치 않아서 공부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 나와 경전

공광명경



이만  
동국대 교수·불교학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잘 쓰고 있는 무슨 경전 할 때의 경(經)은 본래 지구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의 하나인 경도(經度)에서 말로서, 이것이 직물(織物)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 날을 보면 그 모양에 있어서 쪽 뻗어서 똑바르기 때문에 이를 우리 생활 속의 교훈에 비유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경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에서 사용하는 경전이란 그 내용이 긴 것이든 짧은 것이든 간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으로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마치 실(絲) 등을 가지고 옷 등을 꿰어서 화환을 만드는 것과 같이, 온갖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이를 각각한 뒤에 진리 그 자체를 설하신 내용이 경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보살이 부처님의 수명이 80세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갖자, 사방에서 부처님들이 출현하여 부처님의 수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설했다는 것이며, '분별삼신품'에서는 여러의 세가지 몸, 즉 법신과 보신과 화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금고참회품'과 '시방보살산탄품' 등에서는 금고광명의 가르침과 금광명법법의 공덕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또한 '중현공성품'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몸은 허망하기가 마치 빈 마을과 같으며,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 즉 6근은 번뇌의 도둑들이 따로 있어서 재갈 만한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마치 실(絲) 등을 가지고 옷 등을 꿰어서 화환을 만드는 것과 같이, 온갖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이를 각각한 뒤에 진리 그 자체를 설하신 내용이 경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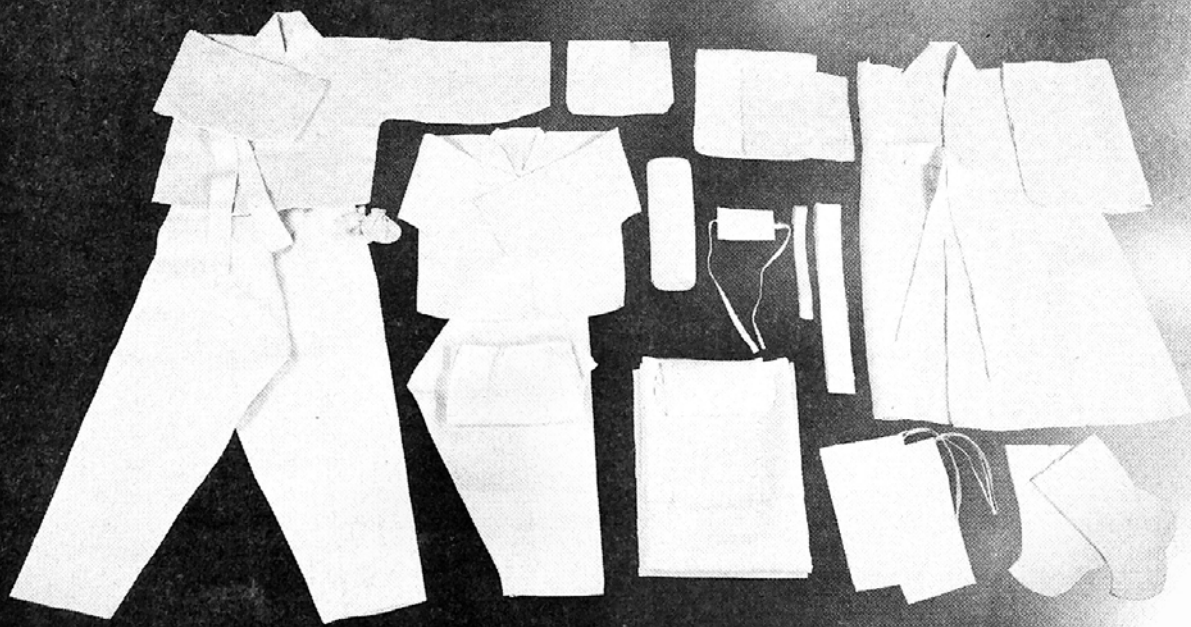
**“사천왕 호국품”에 의거 사천왕사 건립  
수지독송하면 국가보호 ‘호국 삼부경’**

지나도 해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신상보살, 건로지신, 사천왕, 대변신, 공덕천 등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의 수명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량이 없고, 경전에 설해진 내용은 미묘하기가 그치없어서 여러 경전 중에서 가장 뛰어나므로 이를 '최승왕경'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그 찬란하고 빛나는 내용이 마치 금과 같으므로 이를 '금광명경'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해서 <금광명최승왕경>이라고도 하는 이 경전에 관한 우리 나라의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를 또한 금고경이라고 이름할 때가 있다. 이는 의정(義淨)이 번역한 <금광명최승왕경> 중의 제4 문경금고참회품에서 그 이름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금광명경>의 구성을 보면 권본의 차이에 따라서 이에 설해진 각 품의 숫자도 다른데, 담무함(曇無讖)의 것은 19품으로 되어 있고, 보귀(寶貴)가 엮은 것은 24품이며, 의정이 번역한 것은 총 31품으로 되어 있다. '여래수랑품'에서는 왕사성의 신상

이 경을 호지하거나 독송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사천왕이 철저히 보호해주고, 또한 모든 공포로부터 구제해주며, 침략자들을 물리쳐주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이를 면케 하여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질병에 걸렸을 적에도 조속하게 그를 낫게 하여 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호국경전으로 알려진 <인왕경>과 함께 사천왕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신앙심의 발로에서 거의 모든 대승국가들이 개인이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이를 호지, 독송하고서 의례나 법회 등을 여는 의식이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이 일부의 국왕이나 고승들이 이러한 사천왕의 가호를 얻기 위하여 사천왕사 등을 지었으며, 백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를 전할 때에 이 경전도 함께 전해져서 매년 사천왕의 왕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것은 이 경이 그만큼 영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이 경전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다시 각색해서 큰 법회라도 한번 열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시요!

###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일  
이보다 값진 효도는 없습니다”**

수의를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입니다. 꼭 윤달이 든 해에 수의를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회갑, 진갑이 가까워 온다면 올해 수의를 지어 드리십시오. 일상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값진 효도가 될 것입니다.

불교텔레비전 bn이 효심깊은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b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시요.



btv.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 (02)3270-3366 팩스: (02)3270-3498

“정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